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씨 뿌리시는 주님은

오늘도 내 마음의 들판을 조용히 걸으십니다.

말씀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영혼의 가장 깊은 흙을 찾습니다.

메마른 돌밭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심으십니다.

가시덤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으로 하나씩 걸어 내십니다.

주님은 열매를 먼저 찾지 않으시고,

먼저 좋은 땅이 되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침묵 속에 받아들인 한 알의 말씀이

내 삶의 계절을 바꾸어 갑니다.

백 배의 열매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갈아엎어 당신의 씨앗을 품게 하소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내 삶 전체가 복음의 풍성한 수확이 되게 하소서.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7/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 19,455

현재 참가 인원 - 59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 예물 준비 성가 : 76, 220

성체 성가 : 180, 171

파견 성가 : 48



본당 설립 50주년 축하 하늘뜨락제 2026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교우들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 하늘뜨락제를 개최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모여 즐거운 축제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사 내용

- 바자회 ● 50년 역사 사진전 ● 노래자랑 및 축하 공연
- 먹거리 장터 & Beer Garden ● 미술 전시회 ● 어린이 놀이동산

❖ 접수 기간 및 문의 : 8월1일(토)~8월16일(주일)

- 바자회 관련 : sbaek@ymail.com
- 미술품 관련 : 253-330-3137
- 노래자랑 & 축하 공연 신청 : 206-779-1831 또는
오른쪽 QR 코드 스캔
- 전체 행사 문의 : 206-412-8562 (50주년 준비위원회)



하늘뜨락제 정보

사용 화폐- 쿠폰(Coupon)

1. 하늘뜨락제의 모든 거래는 성당에서 발행한 쿠폰으로 진행됩니다.
2. \$5.00 / \$20.00 쿠폰 두가지를 사용합니다.
3. 쿠폰 구입은
 - 7월 12일부터 구역을 통해 사전 구매 가능 (\$100 구입 시 + \$10 보너스 쿠폰 제공)
 - 8월 2일 & 8월 9일 - 성당에서 직접 구매 가능 (\$100 구입 시 + \$10 보너스 쿠폰 제공)
 - 8월 22일- 하늘뜨락제 당일 구입 가능 (단, 보너스 쿠폰은 없음)
4. 구입한 쿠폰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냉담 신자나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 쿠폰을 선물로 주어, 하늘뜨락제를 함께 즐기며 우리 성당의 50주년을 알리는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공지 사항

1 시노드 6차 모임

- 일시 : 7/12(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주제 : ① 우리 본당 어르신들과 노약자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② 우리 공동체 밖이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2 구역의 날

- 일시 : 7/12(주일) 교중미사 후
- 각 구역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 구역장 회의

- 일시 : 7/19 (다음 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 주일학교 VBS

- 일시 : 7/18(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대상 : PreK - 4학년
- (2026년 9월 새학년 기준)
VBS 행사로 인해 당일 주차장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5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7/19(주일) 오전 8시 미사 후
- 장소 : 110호실

6 하늘뜨락제 노래자랑 참가자 모집

- 대회 일시/장소 : 8/22(토) 오후 3시, 하늘뜨락제 공연장
 - 참가 대상 : 전신자
 - 신청 기한 : 7/19(주일까지)
 - 접수처 : 문자/전화 최정필 미카엘 206-779-1831
 - 제출 정보 : 이름, 세례명, 전화번호, 참가 곡명(선택 사항)
- 하늘뜨락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숨겨진 재능과 가창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

7 성 김대건 한국학교 교사 모집

- 성 김대건 한국학교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글 및 한국 문화 교육에 힘써 주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자격 요건 :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교육 관련 경력자 환영.
 - 수업 시작 : 금요일 오후 6:30 - 9:00
토요일 오전 9:30 - 12:00
 - 문의 : sakks10@gmail.com

8 2027 세계 청년 대회 확정 신청서

세계 청년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과 함께하는 보편 교회의 큰 행사입니다.

기도, 미사, 교리 교육,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익히는 시간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께서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신청서 시 작 : 4/5/26 (주일)
- 확정 신청서 마감일 : 7/26/26 (주일)
- 문의 :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혹은 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justin123yi@gmail.com

9 본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당송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제1독서..... 이사 55,10-11
<비는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한다.>

화답송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제2독서..... 로마 8,18-23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3,1-23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나,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연중 제14주일(7/5)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35명	59명	252명	-명	62명	408명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넬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터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a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7월은 쉽니다. (8/27/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8/1/26)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2026년 제6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2026년 7월 26일,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 49,1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얼굴을 당신 손바닥에 새기셨고(이사 49,16 참조) 자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당신 사랑이 훨씬 크다고(이사 49,15 참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백성 전체에게 친근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그 친밀하고도 깊은 대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건네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안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이사 49,14)라며 괴로워하는 마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 특히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자기 삶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절망에서 기도가 우러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잊혔다는 아픈 마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상당수가 노인들입니다.

그 누구도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정의의 행위이자, 인간의 삶을 너무나 자주 사라지게 하는 익명성에 대한 응답입니다. 특히 많은 노인의 삶에는, 그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고 그들을 잊게 만드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 듯합니다. 이는 외로움에 짓눌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고유함이 침대 번호나 병명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는 요양 시설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교회가 모든 이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딸이라는 깨달음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는 사실을 되새겨 보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이 모든 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조부모, 연로한 가족 구성원, 찾아 줄 사람이 전혀 없는 이도 방문하는 아름다운 관습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담화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있어 줌으로써, 그들에게 교황의 친밀함과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예언자가 전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 따스하고 애정 어린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속도를 내고 편편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시대에, 인간의 몸은 다정함을 지닌 손, 섬세한 마음, 그리고 좋은 말들로 계속해서 보살핌받고 인정받기를 요구합니다. 디지털 문화는 연결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친밀함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욕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회칙 「고귀한 인류」 [Magnifica Humanitas], 239항).

교회는 연로한 교회 구성원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고 짐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을 중시하는 경제가 가족의 유대를 약화시킨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전쟁터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기에, 많은 노인이 홀로 남겨진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복자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말씀처럼, 나이가 어찌하든, 특히 더 이상 젊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 어머니입니다”(삼종 기도 훈화, 1978.9.10.).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에 이르러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느님의 아들딸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베푸시는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초대는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나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 전반에 걸쳐, 때로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의 자애를 깨닫습니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진정한 신앙 체험 없이 노년에 이르는 경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년은 삶의 이 시기에 제기되는 더욱 절실한 질문들에서 출발하여 영적인 삶을 시작하거나 다시 이어가기에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여정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대로 하느님께서 “어머니”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껴 주시고 길러 주시며 보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시편 주해」 [Commentarii in Psalmos], 26편, II, 18). 이러한 깨달음에 힘입어,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언제나 서로가 필요하며 관심과 보살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애를 통하여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자녀다운 신뢰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인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백성”(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22.2.23.)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고령 인구가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동반하는 연약함에 압도되는 듯한 이 시기에, 이 “새로운 백성”인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약함은 삶의 다른 단계들을 밝혀 주는 새로운 잠재력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이 열려, 서로를 지지하게 되고, 어떠한 인간적 힘으로도 보장할 수 없는 것, 곧 마음에서 우러난 깊은 화해와 이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참평화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께 간구하게 됩니다”(알제리 공동체와의 만남에서 한 연설, 아프리카 성모 대성전, 알제리 알자이르, 2026.4.13.).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동시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년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노년기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요한 3,4-6 참조), 이사와 예언자와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안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평온과 신뢰 속에 너희의 힘이 있[다]”(이사 30,15). 이 힘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데에서 오만과 권력의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화해와 참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폭력과 사회 불안으로 심하게 얼룩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주들이 자라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하루빨리 온 누리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노년의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특히 묵주 기도를 바치며 저를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기도에 화답하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전합니다. 저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가 언제나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바티칸에서
2026년 6월 15일
레오 14세 교황